



15일 오후 본사에서 열린 '2025 광주매일신문 NIE 지역신문 만들기 대회' 시상식에 참석한 이경수 대표이사과 수상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맑은누리지역아동센터’ 영예의 대상

본보 ‘2025 NIE 지역신문 만들기 대회’ 시상식

신문 제작으로 협동심·성취감 함께 경험
지역사회 속 아동센터 역할·의미 조명도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2025 NIE 지역신문 만들기 대회’ 시상식이 15일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북구 맑은누리지역아동센터가 대상을, 남구 무지개지역아동센터와 서구 서남지역아동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산구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북구 서머힐지역아동센터, 서구 신나라지역아동센터는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NIE 지역신문 만들기’는 광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과 사진으로 직접 신문을 제작하며 표현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매일신문은 창의성, 전달력, 신문 편집,

참여도, 정성평가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육에 참여한 모든 센터아동들에게 광주매일신문 명예기자증을 수여해, 아이들이 지역 언론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신문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격려했다.

대상을 받은 북구 맑은누리지역아동센터는 ‘신문과 친해지기’라는 NIE 교육 취지에 가장 잘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완성도, 지역사회에서 아동센터가 맡고 있는 역할을 성실히 담아낸 점이 돋보였다.

북구 맑은누리지역아동센터의 지면은 인트로 페이지를 시작으로 안전생활면, 교육면, 특집면, 문화면, 마음성장면, 지역사회연계면 등으로 구성돼 알차게 채워졌다. 특히 ‘센터 내 자전거 상형제의 꿈틀’ 코너까지 마련해 생활 밀착형 정보와 재미를 더했다. 각 면마다 아이들이 작성한 기사와 사진이 실려 참여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으며, 다양한 주제와 시선으로 꾸

민 다채로운 구성 또한 돋보였다.

김지숙 북구 맑은누리지역아동센터장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신문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크게 높아졌을 뿐 아니라 우리 센터의 일상과 프로그램을 새롭게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함께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추억을 나누고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따뜻한 공간으로 센터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북구 맑은누리지역아동센터 최주호(용두초 5)군은 “친구들과 함께 신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겁고 오래 기억에 남았다”며 “제작 과정을 경험해보니 하나의 신문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 NIE 신문 만들기 사업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역신문 활용교육(프로그램 위탁 운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교육 참여를 희망한 광주지역 6개 센터를 대상으로 총 4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최명진 기자



칼끝으로 새긴 생의 기억

김광례 초대전, 내일부터 오월미술관

◀ ‘까마귀 (소명과 생명의 시간)’

흙과 불로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건네는 전시가 마련됐다.
조각가 김광례 초대전 ‘흰 칼끝, 검은 흙’이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오월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올해 신작을 중심으로 한 해의 작업 세계를 총망라한다.

전시는 도조화(刀組畵), 부조(浮彫), 설치세 가지 색선으로 구성돼 총 1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흙의 물성을 바탕으로 불과 색, 화학적 감각이 교차하며 만들어진 입체적 조

형이 두드러진다. 검은빛, 붉은빛, 푸른빛이 각 각 고유한 결을 이룬다.

도조화 연작은 ‘춧불’, ‘붉은 산’ 등 4점이다. 흙을 조각도로 파내는 과정은 마치 목판화의 세밀한 선긋처럼 드러나며, 전시 제목에 언급된 ‘칼끝’의 의미를 상징하기도 한다.

부조 작품은 11점이 전시된다. 인간의 근원적 본능, 고통, 쓸쓸함, 그리고 죽음 이후의 정적까지 포착한다. 삶의 부조리와 절망 속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존재의 피와 흔적을 표현한다.

전시에서는 까마귀 형상 새들을 통해 죽음과 생명을 나뉘는 설치작품 ‘새들과 종 (태고의 시간)’도 만나볼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청년 도예작가 5인 기획전
오는 21일까지 미로센터

김시원작 ‘균열’

전통의 질감 위에 청년 감각이 스민 도자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청년 도예 작가 공예기획전 ‘두 번째 태도(態陶)’가 오는 21일까지 동구 미로센터에서 열린다.

제22회 충장축제 기간 열리는 이번 전시는 도자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청년 작가들의 개성 있는 ‘태도’를 조명한다.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태도의 의미를 도예로 확장해, 형태와 표면에 깃든 예술적 감각을 탐색한다.

참여 작가는 김시원·문담·양희진·임소원·정우재 5명이다. 균열과 빛의 대비 속 상처를

품은 존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김시원의 작업을 비롯해 정우재의 달항아리, 임소원의 청자다기세트 등 오브제 형식 도자기부터 실생활용 세라믹 작품까지 폭넓은 작업 세계를 펼쳐 보인다.

전시 기간에는 작품 감상과 더불어 현장 판매도 진행된다. 충장축제는 물론 ‘제12회 무등아트 페스티벌’과 같은 기간 운영돼 시민들이 예술을 한층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충장축제 기간에는 밤 9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문의 062-608-2131-6. /최명진 기자

장흥 보림사, 문학·전통 어우러진 ‘비자림 음악제’

18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

천년 고찰 장흥 보림사가 지역의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음악제를 연다.

전남도와 장흥군이 후원하는 ‘노벨문학도시 장흥, 보림사 비자림 음악제’가 오는 18일 오후 6시 보림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고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노벨문학도시’로 도약하는 장흥의 위상을 알리고, 천년 고찰 보림사의 문화재적 가치를 널리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대에는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한다.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트라가 웅장하고 세련된 화음을 선보이고, 록의 아이콘 김경호는 9인 밴드와 함께 폭발적인 라

고찰의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지는 서정적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진행은 배우 겸 모델 오지호와 ‘2025 미스코리아 전라제주 진’ 함지윤이 맡아 품격 있는 사회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인다. 부대행사로는 전미란 작가의 민화 전시, 지역 특산물 판매와 문화제 해설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음악제 입장은 무료 티켓 소지자에 한해 가능하다. 티켓은 BBS광주불교방송, 광주 백선청원모임, 화순 석천사, 장흥군청, 보림사 등에서 배부 중이다.

보림사 주지 정응 스님은 “천년 고찰 보림사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제가 음악과 불교문화, 문학의 정신이 어우러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묵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